Daishin 증권

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 년 4 월 2 주차

- 트럼프 협상 양대 축 '과도한 요구'와 '마감시한'. 미국-이란, 종전 관련 '선 합의(4.9일)-후 논의(~5.14일)' 예상
- 인텔, '팹34' JV 지분 재매입, 디지털리얼티, 하이퍼스케일 펀드 자금모집 최종 완료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Mexico ETF(EWW), [미국주식] 인텔(INTC), [글로벌리츠] 디지털 리얼티(DLR)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실적 모멘텀 강화 국면, 단기 지정학 리스크 경계

-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대기, 수출 호조 기반 실적 모멘텀 강화
- 지정학적 불확실성 잔존, 단기 변동성은 경계
- 실적 대비 낙폭이 과도했던 화학, 2차전지, 소매(유통) 강세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지주업/ESG] [Issue&News] '26 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 의결권 전쟁

- 제도 변화 ① 의안별 표결 수 공시 의무화
- 제도 변화 ② 대주주 지분율에서 소수주주 의결권으로, 의결 지형의 변화
- 커버리지 7개 지주사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1Q26 Preview] 한전 KPS: 1Q26 실적 회복 + 해외 원전 정비사업 재평가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72,000원으로 상향
- 해외 원전 수주 잠재시장 확대 및 수주 모멘텀과 동반한 주가 재평가
- 1Q26 이후 계획예방정비 준공 호기 수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2026년 4월 2주차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다은

- 트럼프 협상 양대 축 과도한 요구와 마감시한. 선 합의(4.9일)-후 논의(~5.14일) 예상
- 인텔, '팹34' JV 지분 재매입, 디지털리얼티, 하이퍼스케일 펀드 자금모집 최종 완료
- 주식 포커스: iShares MSCI Mexico ETF(EWW), 인텔(INTC), 디지털 리얼티(DLR)

[글로벌전략] 이란 전쟁, 미국의 시계에 맞추면 끝이 보인다

트럼프 협상의 양대 축은 과도한 요구와 마감 시한. 현재 양국 간 종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국안을 최대한 수용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 전쟁 진행 중 향후 일정을 사전 제시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계 주목(4.1일, 4.7일, 4.9일, 4.22일, 5.14~15일). 4.7일까지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4.1일 트럼프 대국민 연설은 미국 종전 잠정일(4.9일)까지 종전 선언을 위한 이란 압박 카드, 4.22일 이스라엘 건국기념일, 트럼프 '이스라엘상' 수상 예정(종전 시). 4.9일까지 포괄적 합의, 트럼프의 중국 방문일인 5월 14일 전까지 세부사항 논의 가능성 높음

[신흥국전략] iShares MSCI Mexico ETF(EWW): 글로벌 관세 불확실성 재개, USMCA, 니어쇼어링 수혜 기대

3.2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대한 무역 장벽 조사 개시. 4.2일 트럼프 행정부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의약품에 대한 관세 행정 명령 서명. 글로벌 관세 갈등이 재개되며 무역 협정 체결국의 중요도 상승. '26.7월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멕시코의 지정학적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는 중. 멕시코는 미국 주도의 일본 · EU와 함께 핵심 광물 동맹 이니셔티브에 초청됐고, 캐나다와는 양국 간 광물 · 인프라 · 공급망 분야 공동 행동 계획을 논의. 북미 제조업 공급망 핵심이자 니어쇼어링 수혜 기대

[미국주식] 인텔(INTC): Agent AI 시대에 진입하면서 CPU 수요 확대. '팹34' JV 지분 재매입

AI 데이터센터향 수요와 더불어 소형 모델, 에이전트형 AI의 부상으로 CPU에서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양상. PC 제조사들은 CPU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통상 1~2주였던 납기 기간은 평균 8~12주까지 늘어남. 인텔은 중저가형 CPU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 공급 부족을 반영해 CPU를 생산하는 '팹34' JV 지분 49%를 2년만에 재매입하기로 결정

[글로벌리츠] 디지털 리얼티(DLR): 미국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1호 사모펀드 최종 클로징

3월 말, 디지털리얼티는 32.5억 달러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펀드 자금모집을 최종 완료. 노던버지니아 등 주요 Tier I 지역의 데이터센터 개발에 집중 → 최대 100억 달러 투자 확장성을 확보. DLR이 20% 지분 참여 및 운용을 총괄하는 구조 → 리츠 본체의 재무 부담은 줄이면서 대규모 개발을 지속하는 자본 효율적 성장을 추진. 운용 수수료와 성과 보수 등 수익 구조를 다변화 → 중장기 FFO 및 ROE 높이는 '플랫폼형 성장 모델' 로 전환 가속

Strategy

실적 모멘텀 강화 국면,

단기 지정학 리스크 경계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대기, 수출 호조 기반 실적 모멘텀 강화
- 지정학적 불확실성 잔존, 단기 변동성은 경계
- 실적 대비 낙폭이 과도했던 화학, 2차전지, 소매(유통) 강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대기, 수출 호조 기반 실적 모멘텀 강화

4월 7일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이 유입.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속도가 가팔라지는 모습. 최근 3개월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8조원이며, 최근 1개월 기준 컨센서스는 42조원으로 상향

예상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확인될 경우, 실적 서프라이즈에 따른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음. 당사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53조원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

견조한 3월 수출도 실적 기대를 뒷받침. 3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반도체, 컴퓨터와 석유, 철강 등이 수출 호조를 보임. 이에 따른 반도체, IT, 수출주를 중심으로 이번 실적 시즌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

반도체/IT하드웨어: 삼성전자(+3.7%), LG이노텍(+3.7%), 이수페타시스(+2.1%)

에너지: S-Oil(+6.0%), SK이노베이션(+4.2%)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잔존, 단기 변동성은 경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며 지수 상승폭 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6일까지 이란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란을 타격하겠다고 언급. 이후 '7일'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며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시사했지만, 트럼프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전 상태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그러나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회담을 진행.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에도 최근과 유사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제한

한편 미국과 이란, 중동 내 중재국들은 45일간의 휴전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향후 48시간 내 즉각적인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시장은 전면전이나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는 분위기

실적 대비 낙폭이 과도했던 화학, 2차전지, 소매(유통)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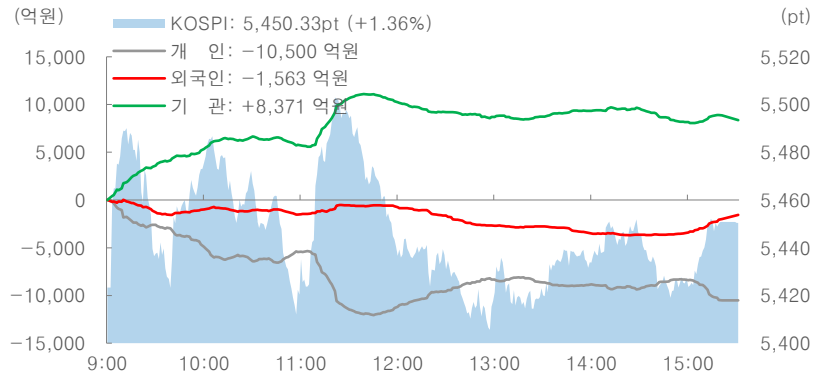
실적 시즌을 맞아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에 대한 관심 확대

화학: 효성티앤씨(+8.1%), 대한유화(+8.2%), 이수스페셜티케미컬(+4.8%)

2차전지: 삼성SDI(+3.4%), LG에너지솔루션(+3.5%), 엘앤에프(+2.5%)

소매(유통): 신세계(+6.1%), 롯데쇼핑(+5.1%), GS리테일(+2.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ssue & News

지주업 /ESG

'26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 의결권 전쟁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이채리 RA cherry.lee@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신규

- 제도 변화① 의안별 표결 수 공시 의무화
- 제도 변화② 대주주 지분율에서 소수주주 의결권으로, 의결 지형의 변화
- 커버리지 7개 지주사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주주총회 결과 공시 정보 질적 제고 및 셀프 보수 승인 관행에 제동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년과 구분된다. 하나는 ①공시 제도의 변화다. 2026년 3월부터 의안별 찬반 표결 수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 정보량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다른 하나는 ②이사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미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제도와 실무 양면에서 변화가 동시에 관찰된 시즌이다.

대주주 지분율이 보수 안건의 방패가 되지 않는 시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는 상법상 "특별한 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해당 이사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자신의 보수 결정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결권 정족수(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2026년 주주총회 시즌에만 부결·미결 안건이 총 168건에 달하며, 작년 대법원 판결이 실무 전반에 미친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버리지 7개 지주사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커버리지 7개 지주사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배당성향과 배당 증가율이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주주환원이 선택이 아닌 의무에 가깝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맞물리면서 지주사 섹터 전반의 배당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제도적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에 Peer Pressure가 작동하는 섹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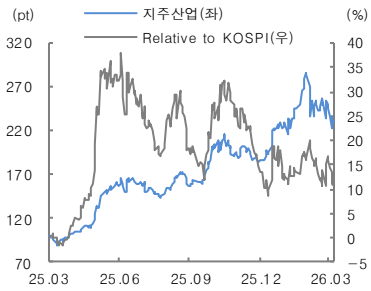
	배당성향(2025)	전년 대비 배당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
CJ	77.0%	+10.0%	우수형[주1] 충족
SK	27.6%	+14.3%	노력형[주2] 충족
HD현대	29.4%	+11.1%	노력형 충족
두산	94.6%	+100.0%	우수형+노력형 충족
LG	64.9%	0%	우수형 충족
한화	26.5%	+36.7%	노력형 충족
효성	25.3%	+66.7%	노력형 충족

주1) 우수형: 배당성향 40% 이상
주2) 노력형: 배당성향 25% 이상+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자료: DAR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CJ	Buy	260,000원
SK	Buy	390,000원
HD현대	Buy	300,000원
두산	Buy	1,370,000원
LG	Buy	110,000원
한화	Buy	130,000원
효성	Buy	18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1	18.0	41.7	142.3
상대수익률	-5.8	-2.0	-7.7	9.6



Earnings Preview

한전KPS (051600)

1Q26 실적 회복 + 해외 원전 정비사업 재평가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72,000 상향
현재주가 (26.04.06)	56,300 유틸리티업종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72,000원으로 상향
- 해외 원전 수주 잠재시장 확대 및 수주 모멘텀과 동반한 주가 재평가
- 1Q26 이후 계획예방정비 준공 호기 수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72,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72,000원(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 20배로 2011~2025년 평균 PER 17배 대비 20% 할증)으로 상향. 1) 1Q26 이후 실적 개선, 2) 2025년에 수주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자로 압력관교체 및 설비개선 공사 수주분(4,850억원, '27년 9월~ '30년 6월)은 4Q26부터 사전작업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2026년 중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정비 수주 기대(매출은 '28~'29년부터 발생 시작 기대), 향후 글로벌 노후 원전 성능개선정비 시장 진출 확대, K-원전(APR 1000/1400, i-SMR 등)의 해외 수주 등으로 해외 원전 정비 시장 진출 확대는 긍정적. 3) 원전 설계 및 기자재, 건설 사업은 매출이 건설 초기부터 발생하여 공사기간 동안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지만, 정비사업 매출은 원전 준공 4~5년 전부터 발생하여 운전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함. 오랜 기간 동안 나누어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시간가치 할인이 큰 점은 사실임. 그러나 팀코리아의 해외 원전 수주 잠재 시장 확대 및 모멘텀에 따른 동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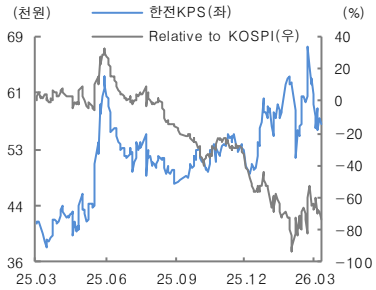
1Q26 영업이익 359억원(+361% YoY), 2026년 1,904억원(+36%) 예상

1Q26 매출액 3,245억원(+13%, 이하 YoY), 영업이익 359억원(+361%), 영업이익률 11.1%(+8.4%p) 예상. 4Q25 계획 대비 지연되었던 원전 및 화력발전의 계획예방정비 및 개보수공사가 1Q26에 준공됨에 따라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 참고로 1Q25에는 원전 계획예방정비공사, 4Q25에는 화력 개보수공사 매출 부진, 재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바있음

2026년 매출액 1.62조원(+3%, 이하 YoY), 영업이익 1,904억원(+36%) 전망. 계획예방정비 준공 호기수 회복, 가동 원전 호기수 증가 등에 따른 실적 증가 예상

KOSPI	5450.33
시가총액	2,53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8%
자본금(보통주)	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7,500원 / 38,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53억원
외국인지분율	10.29%
주요주주	한국전력공사 외 1 인 51.02% 국민연금공단 9.4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0	11.9	17.3	39.9
상대수익률	4.5	-7.1	-23.6	-36.7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557	1,577	1,623	1,728	1,769
영업이익	209	140	190	202	215
세전순이익	225	156	207	219	231
총당기순이익	172	124	159	167	177
지배지분순이익	172	124	159	167	177
EPS	3,832	2,761	3,525	3,722	3,935
PER	11.5	17.9	16.0	15.1	14.3
BPS	29,520	29,906	31,797	33,257	34,816
PBR	1.5	1.7	1.8	1.7	1.6
ROE	13.3	9.3	11.4	11.4	11.6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전KP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